

# 카투사 격주간

1976년 6월 1일 창간

THE KATUSA, A BI-WEEKLY PUBLICATION

2004년 7월 두 번째 29권 13호

## 이번 호에는...

### 2면 군관련 소식

한미연합대테러 훈련

불굴의 독립정신을 찾아서

### 3면 군관련 소식

미2사단, 이라크로!

한마디

### 4, 5면 부대 탐방

8인사행정사령부



### 6, 7면 카투사 기고문

카투사전역기고문

진우와 함께하는 음악이야기

### 8면 안녕하세요

오윤아



### 부대 탐방 후보지 신청

카투사지가 부대탐방 후보지를 찾습니다. 부대 탐방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준비하오니 최소 한달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8월 이후 부터 취재할 부대 탐방 후보지를 찾고 있습니다.

부대탐방은 7명 이상의 카투사가 근무하는 부대를 위주로 신청 받고 있으며 관련 부대가 신문에 실린 지 6개월 이후이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부대를 다른 카투사들에게 소개하고 동기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 올해의 카투사, 김윤근 상병

미 2사단 44공병대대 김윤근 상병  
투철한 단결정신으로 성과 일궈내..

미 8군이 선정한 올해의 미군 부사관, 병사 그리고 카투사 시상식이 지난 16일 용산 사우스포스트 드래곤 힐 호텔 연회장에서 열렸다.

미2사단 공병여단 44공병대대 82전투장비지원중대의 김윤근 상병이 19전구지원사령부 501지원단 498지원대대 305병참중대의 이용주 상병과의 경합 끝에 올해의 카투사로 선정되었다. 김상병은 부상으로 9박 10일의 포상휴가와 제주도 왕복 여행권, 호텔 숙박권, 일정액의 수표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전 미군 보드대회에 참가할 기회가 주어졌다. 김상병은 "우선 하나님과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곁에서 열심히 도와 준 동료 장병들에게 감사한다"며 수상 소감을 밝히고, "내가 받은 이 상은 나 혼자만의 상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해 준 모든 동료 장병들의 것이다. 나만의 노력으로 이뤄진 것이 아닌 모든 이들의 협동으로 얻어진 성과이기 때문이다. 2사단은 세계 최고의 부대"라며 카투사들의 경례 구호인 진정한 단결정신을 보여 주었다.

정확한 대회 제창 시기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미 육군 역사의 초창기부터 계속되어 온 '올해의 병사' 시상식은 예년까지는 군인의 자세와 화생방, 응급조치, 군대 예절, 군대 역사 등의 군사지식과 체력 검사, 무기 활용 능력 등을 하루 간에 평가, 시상하는 형식이였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더욱 더 실질적인 군사능력의 평가를 위해, 6일만에 걸친 대회 기간동안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눈술 시험과, 주야간 독도법, M16A2 사격술, 무전기 교신법, 군사 차량 점검, 제식, 눈을 가린 채 총기를 분리, 결합시키는 시험 등이 추가로 도입되었다. 실전에 더 강한 병사들을 배출하고자 하는 이같은 부대방침에 따라 대회의 난이도는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이번 시상식에는 미 8군 사령관 찰스 캠벨 중장과 트로이 웰치 주한미군 주임원사가 참석하여 수상자들을 시상하고, 격려하였다. 시상이 끝난 후, 캠벨 중장은 올해의 미군 부사관, 병사, 그리고 카투사 수상자들을 위한 격려문을 낭독하였다.

"오늘 수상자들의 쾌거는 그들 자신만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 팀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흔쾌히 희생을 하며, 그들 주위의 모든 이들로 부터 교육받고, 훈련 받으며, 도움을 받았기에 오늘의 성과를 이뤄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상적인 군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군인으로서의 단결력을 보여준 여러분 수상자들에게 감사하며,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이병 신희석



미8군 사령관 Charles Campbell 중장이 김윤근 상병에게 올해의 카투사 상을 수여하는 모습.

## 운동으로 다지는 한미 부대의 우정



Pfc. Jahmia Mackerl/36th Sig. Bn. HHD  
축구 경기 시작 전 단체사진을 찍는 양 부대원들.

36통신대대와 한국군 62통신대대는 정기친선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7일 친선축구경기를 가졌다.

지난해 6월 25일 자매결연을 맺은 양 부대는 그동안 긴밀한 협조를 통해 여러 임무와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치루어 내었다. 이 날의 친선축구경기는 양 부대의 우호를 더욱 증진키 위해 기획된 것.

이날 행사 예정시간보다 일찍 62통신대대를 방문한 36통신대대장 미셸 볼린저 중령과 타이론 존슨 주임원사는 이들을 기다리고 있던 62통신대대장 박진규 중령과 이민호 주임원사로부터 따

뜻한 환영 인사를 받았다. 이들은 서로의 근황을 물어보며 20여 분간 담소를 나누었고, 이후 양 부대의 인원들이 기다리고 있는 행사장으로 향했다.

행사에는 양측 부대로부터 각각 35여 명의 인원이 참가하였다. 우선 62통신대대의 환영인사말이 있는 후, 62통신대대의 연혁이 소개되었다. 개회사가 끝난 후 부대 담사가 이어졌고, 이후에는 부대 간 친선축구경기가 있었다. 그때까지 화기애애하던 분위기와는 달리 축구 경기는 시종일관 긴장감이 팽팽하게 흐르며 진행되었다. 비록 쏟아지는 폭우에 경기 진행이 쉽지 않았지만, 경기는 4-4 동점의 점수로 양 팀 모두 사이좋은 무승부를 기록하였다.

경기가 끝난 후 행사 참가자들은 곧이어 62통신대대가 음식을 준비한 장소로 이동, 식사를 함께 하였다. 36통신대대

의 카투사들이 통역을 맡으며 미군과 한국군은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행사에 참가했던 36통신대대 신철관 일병은 "이번 행사를 통해 미군은 한국군의 생활과 임무 수행능력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고, 한국군 또한 미군의 생활을 더 잘 알게 되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미군들도 처음 보는 한국의 다양한 전통 요리들을 먹으며 스스럼없이 한국군과 어울린 좋은 시간이었다고 평가를 내렸다.

36통신대대 본부중대 상병 서진태



Pfc. Jahmia Mackerl/36th Sig. Bn. HHD  
비가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축구 경기에 최선을 다하는 양 부대원들.

# 한미연합 대테러 훈련

육군특전사-미 1특전여단 합동 훈련 실시  
건물/차량/항공 등 어떤 상황서도 작전성공

"국제 테러 조직에 의해 공중 납치돼 안착한 ○○항공기 안에 다수의 승객이 인질로 잡혀 있다. 이들을 안전하게 구하고 인질범들을 제압하라."

전국이 장마전선으로 흠뻑 젖은 가운데 국제 테러 조직의 한국 선박 테러 경고가 내려지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 폭탄 테러 협박 전화가 걸려온 13일, 육군특수전사령부에 이 같은 특명이 떨어졌다.

일순간 긴장감이 감돌기 무섭게 특전사 특수임무대대와 미1특전여단 예하 특수부대 요원 40여 명은 대테러 장비를 갖추고 혼합팀을 편성해 즉각 대테러 훈련장에 출동, 작전팀/저격팀 등 팀별 작전에 들어갔다.

이어 탐장의 수신호가 떨어지고 팀원 간 눈빛을 교환하자마자 일사분란한 진압 작전이 펼쳐졌다. 순식간에 항공기 내 인질범을 제압하고 승객 전원을 안전하게 구출하며 작전을 성공적으로 끝냈다.

이 작전에서는 특히 요원 2명이 신사복장과 스튜어디스 차림으로 위장, 숨겨진 개인화기를 이용해 결정적 순간에 인질범을 제압,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면서 특수 임무 작전의 백미를 과시했다.

육군특전사는 이날 정례 특수 작전 훈련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대테러 훈련을 실전적으로 펼쳐며 인질 진압을



국방일보 제공사진

한미 연합 대테러 훈련에 참가한 육군특전사 특수임무대대와 미1특전여단 예하 특수부대 요원들이 혼합팀을 편성, 항공기 인질 구출 작전을 펼치고 있다.

위한 상황 조치 능력을 극대화했다.

또한 이날, 건물 침투 작전을 전개, 창문을 부순 뒤 옥상에서 레펠로 내부로 침투하며 사격을 가해 인질범을 제압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이와 함께 먼 거리에서 건물 내부의 인질범을 저격하기 위한 조준 사격을 준비, 수초 만에 적의 급소를 명중시키는 전술 응용 사격이 이뤄져 훈련 참관자들의 탄성을 이끌어 냈다.

이번 훈련은 지난 8일부터 3주 계획

으로 시작돼 건물 내부 소탕 작전을 비롯해 열차/버스/항공기 등 유형별 인질 구출 작전, 콘크리트/벽/철문 폭파 등이 24시간 철야로 진행되고 있다.

훈련 관계자는 "그동안 특수임무대대는 이 같은 연합 훈련을 21회에 걸쳐 실시했다"며 "어떤 형태의 테러에도 연합 작전 능력을 즉각 발휘할 수 있다는 데 이 훈련의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

국방일보 제공

카투사 신문은 미 육군 규정 360-1에 의해 미8군 사령부 공보실에서 발행되는 한글판 비공인 미국방성 공인 신문으로, 1회 4,000부씩 월 2회 발행되고 있다. 이 신문은 전국의 미 육군 배속 한국군과 주한미군 요원들에게 배부되며 여기에 게재된 견해와 의견은 미국 정부, 국방성, 육군성, 미8군이나 대한민국 육군의 그것과는 다르다. 카투사 신문은 격주간지로서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에 발행된다. 사무실은 용산 미8군 부대내 C-2330A 이머 전화번호는 723-6460/8376/4683이다. 모든 글은 용산구 채신정 직영 우체국 사서함 59호 미8군 본부중대 공보실로 보내면 된다. 전자우편 주소는 jangsm@usfk.korea.army.mil이다.

- 미8군 사령관
- 중장 찰스 씨 캠펠
- 한국군지원단장
- 대령 김덕곤
- 미8군 공보실장
- 중령 토마스 이 버지나
- 한국군지원단 정훈과장
- 대위 이세희
- 편집장
- 병장 장승모
- 기자
- 상병 김택현
- 일병 염태성
- 이병 신희석



Eighth U.S. Army Commander  
Lt. Gen. Charles C. Campbell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r  
Lt. Col. Thomas E. Budzyna  
Command Information OIC  
Capt. Kone C. Faulkner  
Editor  
Sgt. Jang, Seung-mo  
Staff Writers  
Cpl. Kim, Taek-hyun  
Pfc. Yum, Tae-sung  
PV2 Shin, Hee-suk  
Special Assistant  
Mr. In, Pu-hyun

KATUSA is an unofficial publication authorized by AR 360-1. Editorial content is prepared, edited and provided by the Eighth U. S. Army Public Affairs Office, APO AP 96205-0010. Contents of KATUSA are not necessarily the official views of, or endorsed by, the U.S. Government, Department of Defense, Department of the Army, Eighth U.S. Army, or Republic of Korea Army. KATUSA is an offset publication, printed twice monthly by the Document Automation and Production Service. 4,000 copies are distributed on the 1st and 3rd week of each month. Editorial staff is located in Bldg. C-2330A, Yongsan Garrison, Seoul, Korea. Office telephone numbers are 723-6460/8376/4683. Items submitted for publications consideration should be sent to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 Command Information Division, ATTN: KATUSA NEWS, APO AP 96205-0010. Or use our email address: jangsm@usfk.korea.army.mil. We reserve the right to edit items for brevity, clarity, and news style. Letters to the editor are accepted but must be signed. Names will be withheld by request.

# 불굴의 독립정신을 찾아서

지난 20일 17항공여단 본부중대 일동은 미군 측의 주최로 뉴 호라이즌스 데이(New Horizons Day)를 맞아 천안에 위치한 독립기념관을 방문하였다.

17항공여단 본부중대장 브랜든 비셀 대위에 의해 계획된 이 행사에는 17항공여단 본부중대 지원대장 송경섭 소령도 참가하여 한미 양국 사병들만의 행사가 아닌 장교들 간의 협동과 이해를 돕는 장이 되기도 하였다.

이날 오전 7시 30분에 캠프 코너에서 집합하여 천안을 향한 일행은 약 두

시간 후에 독립기념관에 도착, 기념촬영을 한 후 관람을 시작하였다. 이날 독립기념관을 견학한 미군들은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한국의 일제강점기 참상을 생생하게 보고 느낄 수 있었고, 나아가 미군들과 카투사들이 함께한 가운데 한미 우호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17항공여단 본부중대 선임병장 유재성 병장은 "미군들에게 우리나라가 어떠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민족정신을 가지고 독립을 이뤄 냈는지 직접 보여주며 알려 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기대가 된다"며 한미 우호 증진에 앞장서는 카투사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일행은 독립기념관의 상징인 '겨레의 탑'을 지나 '겨레의 집'을 찾았고, '겨레의 집' 내부 대형 홀 중앙에 위치한 '불굴의 한국인상' 앞에서 서서는 그 웅장함과 섬세함에 모두들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이들은 이어 '민족 전통관', '3.1 운동관', '독립 전쟁관', '대한민국 임시정부관' 등을 돌아보며 우리나라의 독립 역사에 대해서 직접 보고, 느끼며, 배우는 기회를 가졌다.



카투사 신문 신희석

본부중대 작전과의 전영조 일병(왼쪽)과 마이클 데이토 이병이 독립기념관 앞에서 안내도를 보고 있는 모습.

독립 전쟁관', '대한민국 임시정부관' 등을 돌아보며 우리나라의 독립 역사에 대해서 직접 보고, 느끼며, 배우는 기회를 가졌다.

17항공여단 본부중대 통신과의 테디 어스 갓윈 상병은 "일본의 한국 점령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이번 견학을 통해 한국의 아픈 역사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고, 강제 점령기를 지낸 한국인들의 정서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독립기념관을 둘러 본 소감을 말했다.

행사를 주최한 비셀 대위 역시 "오늘 행사는 모든 장병들에게 좋은 배움을 주는 경험의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전쟁 유적지 등을 견학하며, 장병들이 한국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

이병 신희석



카투사 신문 염태성

## 가습 줄이며 시험장으로..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캠프 험프리스에서는 미8군 보드가 6일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사진은 대회 4일째 열린 '미스터리 행사' 중 눈이 가려진 채 501정보여단 주임원사 프랭크 사운더스 원사에 의해 다음 시험장으로 향하고 있는 보드 참가자들의 모습.

## 카투사 신문은 여러분을 위한 공간입니다

카투사 신문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대 내의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해 알려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관련 소식 외에도, 전국의 모든 카투사들과 공유하고 싶은 멋진 추억이나 아름다운 이야기, 전하고 싶은 글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전화: DSN 723-6460

E-mail: jangsm@usfk.korea.army.mil



# 미2사단, 이라크로!

북한의 무력 도발 억제를 담당해오던 미2보병사단(이하 미2사단)의 일개 여단 병력이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새로운 임무 수행을 위해 8월 말 이라크로 이동할 계획이다.

미2사단 2여단은 지난 5월 부대의 재배치 언급이 있었던 이후, 이들이 곧 맞닥뜨리게 될 생소한 기후와 문화, 시가지 전투 등에 대한 대비로 집중적인 훈련을 받아왔다.

미2사단 2여단의 이라크 재배치는, 미2사단의 작전 범위가 한반도 지역에서 전세계로 확대되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사진은 지난 7월 14일 경기도 연천에 위치한 훈련장에서, 이라크에서 있을 실전을 대비해 훈련을 받고 있는 미2사단 2여단 부대원들의 모습들. ■

Sgt. Lisa Jendry/ Eighth Army PA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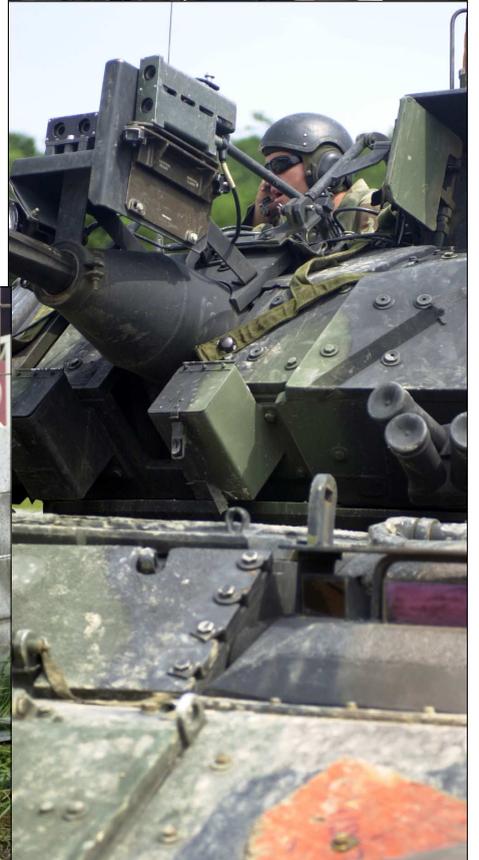


사진: Pfc. Michael Noggle/ Eighth Army PAO



## 카투사 한마디

# 카투사 신문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8인행사 선임병장  
병장 정성윤

벼룩시장 코너가 새로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대 후에 불필요한 물건, 예를 들어 텔레비전, 스테레오 등을 팔 수 있고, 또 새로 전입은 신병들이 그런 물건들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코너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8인행사 본부중대  
상병 성낙기

언제나 즐겨보고 있는 카투사 신문입니다. 유용한 정보와 흥미로운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 기다리는 2주간이 길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기사가 한 지역에 너무 편중되어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 대구나 부산에서 일어난 행사들도 조금 더 비중 있게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좋은 카투사 신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8인행사 본부중대  
이병 문장원

매월 전입오는 신병들을 위해 미군 군대 예절, 매너 등을 익힐 수 있도록 조그마한 코너가 신설되었으면 합니다. 또 빠른 적응을 위해 문답식으로 신병이 질문하고 선임병이 답해주는 코너도 있었으면 합니다. 맛있는 DFAC 탐방 코너도 있었으면 좋겠고, 알찬 군대 생활을 위해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예비역들이 현역 카투사들에게 조언을 남기는 코너도 있었으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8인행사 본부중대  
상병 조남혁

한문 공부를 위한 코너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자성어를 연재하면서 이를 영어로 번역하여, 또는 그와 비슷한 영어 속담을 소개하여 한자 문화권과 영자 문화권의 차이점 또는 공통점을 비교하고 분석하면, 우리 문화와 그들의 문화가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관점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 8th PERSCOM



모든 카투사들이 군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사무실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은 단연 카투사 인사과일 것이다. 세상의 어떤 일이든지 사람들이 관련된 일이면 인사에 관한 사항이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자명한 일.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 8군 전체의 인사 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제 8인사행정사령부(이하 8인행사)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방문하기로 한 아침, 장맛비를 맞으며 찾아간 8인행사 카투사 인사과는 기자의 사무실에서 불과 15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었다. 8인행사의 정성운 선임병장은 반갑게 기자를 맞으며 상세한 부대 소개를 시작했다.

"8인행사는 미 8군에 대한 전반적인 인사 행정을 담당하는 부대로서, 전입과 전출부터 상장 수여, 진급에 이르기까지 장교와 사병을 가리지 않고 인사에 관한 일은 전부 여기서 맡고 있습니다. 부대의 카투사들은 통역과 함께 사회와 학교에서 배운 컴퓨터 활용 능력 등을 이용하여 부대 내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8인행사는 크게 용산에 위치한 516인사대대와 본부중대, 동두천에 위치한 509인사대대로 나누어진다. 516대대 중에서도 브라보, 찰리 파견대는 각각 평택과 대구에 위치해 있으며, 각 지역에서 할당된 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용산에는 본부중대를 비롯, 516대대의 알파 중대, 델타 파견대와, 제1신병보충대가 존재한다.

8인행사 여단장 마이클 해리스 대령은 카투사들의 우수성과 중요성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일단 카투사들은 미군들에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접하게 되는 통로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들이 가장 자주 접하는 한국인은 카투사들이며, 그들을 통해 우리는 한국의 문화 뿐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전문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이 전문성이 카투사들이 부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체

계화되고 전문적인 훈련 과정을 받아 어떠한 임무가 주어 지든지 별다른 어려움 없이 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통 1년 동안 한국에서 복무하는 미군들과 달리 2년의 기간을 가진 카투사들은 오고가는 미군들 사이에 업무를 연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는 이러한 카투사들에 대해 "항상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국가를 위해, 그리고 한미간의 우호를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며 충고의 말을 남겼다.

델타 파견대와 제1신병보충대는 8인행사의 중대 중에서 비교적 독특한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델타 파견대원들은 용산 중앙 우체국에 근무하면서 용산지역 내의 여러 부대들에 우편물들을 분류, 배포하는 일을 수행한다. 8인행사 516인사대대 델타 파견대의 김현태 병장은 "업무시간이 새벽 5시에 시작하고 육체적으로 힘든 일도 비교적 많은 편이지만, 멀리까지 파견을 와서 타지에서 근무하는 미군들을 위해 가족, 친지들이 보내는 소포들을 볼 때면 흐뭇해지기도 한다"며 "크리스마스를 비롯한 명절 무렵 배달되는 선물들을 보며 특히 보람을 많이 느끼는 편"이라고 말했다.

제1신병보충대는 한국으로 배치를 받은 미군들을 인천공항과 오산 공군기지 등에서 맞이하여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는 중대이며, 보통 미군 1명과 카투사 1명이 한 조가 된다. 오산의 경우는 비행기가 도착하는 시간과 장병들의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어서 그 시간에 대기하는 방식이지만 인천의 경우는 들어오는 시간과 인원수 등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대기를 해야 한다. 8인행사 516인사대대 제1신병보충대의 양정모 병장은 "일단 정해진 업무 시간은 오전 5시 정도부터 오후 11시 정도까지이지만 비행기가 날씨 사정 등에 따라 연착하거나 다른 공항에 임시로 내리는 경우도 있어서 새벽까지 근무를 하는 경우도 다반사"라며 "물론 휴일이라는 개념이 없고 인천 같은 경우는 도착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항상 대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힘든 경우도 많지만, 우리가 바로 한국을 방문한 미군들이 처음





제공사진

으로 만나는 한국인이자 카투사라는 큰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사람들을 직접 상대하는 일이 그렇다시피 에피소드도 많이 생긴다고 한다.

"하루는 결혼을 한지 얼마 안 되는 여군 일병이 이곳으로 전입 받아 온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오는 미군들은 크게 분류해서 이곳에 온 사실을 좋아하는 부류와 싫어하는 부류가 있는데, 그 여군은 후자에 속하는 편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만나서 서류 처리나 서명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 사람은 협조를 하지 않고, '당신들이 내 심정을 아느냐'며 울고만 있었습니다. 결국 같이 있던 미군들과 함께 달래서 겨우 설득시

을 방문하여 영어교육과 함께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토요일에는 남산 초등학교와 덕수 초등학교에 약 10명의 카투사와 미군들이 방문하여 2인 1조로 각 반에서 영어 수업을 실시하고, 이와 함께 8인행사 선임병장이 미군 장교들과 고려대 학군단을 방문하여 영어 수업을 진행한다. 물론 학군단에서는 전원 미군 장교로 구성된 교사들이 수업을 진행하며, 정병장은 필요한 통역 업무 등을 맡고 있다. 이번 학기에 남산 초등학교 교육을 맡은 카투사 중의 한명인 8인행사 516인사대대 알파 파견대의 신동민 상병은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진 조그마한 능력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정말 좋은 것 같다"며 "물론 우리도 주말을 이용하며 실시하는 교육이기는 하지만 항상 기쁜 마음으로 교육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봉사활동의 경우는 봉사의 효과뿐만 아니라 미군들과의 친분을 쌓는 기회도 될 수 있다. 8인행사 본부중대의 레오넬 로드리게스 병장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조준영 일병과 동료임과 동시에 절친한



제공사진

8인행사의 취재를 진행하면서 무엇보다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부대원들 사이의 끈끈한 정이었다. 확실한 기강이 잡혀 있으면서도 가족 같은 부대 분위기에서 구성원들의 일에 대한 능력은 훨씬 높은 것처럼 느껴졌다. 여기에 덧붙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면서도 사랑이 듬뿍 담겨있는 이들의 꾸준한 봉사활동은 단지 인사 담당 부대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치부해버리기에 너무 훌륭한 것이었다. 물론 이런 분위기는 단지 한두 사람이 이끄는 것이 아닌 전 구성원들의 노력 덕분에 얻어진 결과였을 것이고, 이러한 것이 바로 진정한 선진 군대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취재 도중 내내 자신이 데리고 있는 카투사들에 대한 자랑을 하며 따뜻하게 기사를 맞이해준 8인행사 지원대장 허열 소령은 떠나는 기자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우리 부대의 장병들은 개개인을 먼저 챙기기보다는 소속감을 중요시 여기며, 선후임 간의 관계도 매우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심심찮게 축구, 농구 등의 운동을 어울려서 하는 모습이 보이며, 운동을 좋아하는 나도 수시로 참가하여 같이 즐기곤 합니다. 군대에서는 국가를 지키는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제일 먼저이겠지만, 이와 동시에 미래를 대비한 자기계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능력만 너무 믿지 말고 모든 일에 목표를 잘 세우고 성실하고 꾸준히 정진하면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역시나 '인사행정' 부대의 지원대장다운 인간미 넘치고 정감어린 충고였다.

일병 염태성



켰던 적이 있습니다."

8인행사의 가장 대표적인 자랑거리는 단연 다양하고 풍성한 봉사 및 대외활동이다. 짧게는 3년부터 길게는 1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8인행사의 봉사활동은 초등학교와 고아원의 영어교육부터 미군 장교들의 고려대 학군단 영어교육까지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어느 부대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 매주 수요일 업무시간이 끝나면 카투사와 미군들이 부대 근처의 '혜심원'이라는 고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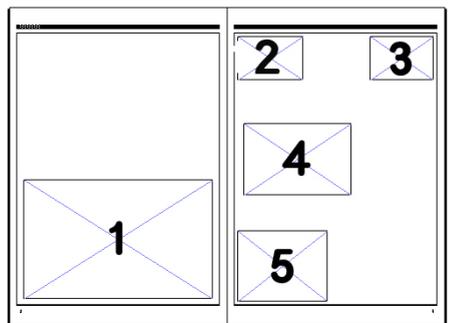
친구이다. 로드리게스 병장은 항상 "조일병에게 사소한 것이라도 매주 한국에 대해 조금씩 배우도록 노력한다. 물론 나도 그에게 우리의 문화에 대해 많이 가르쳐 주려고 하고, 주말에 시간이 날 때마다 동물원, 놀이 공원, 경복궁 등 한국의 여러 곳들을 구경하기도 한다"며 그와의 우정에 대해 밝혔다. 또한 "조일병 덕분에 한국 음식도 많이 익숙해져서, 불고기나 김밥 등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말했다.

다. 신상병의 경우도 "토요일에 영어 교육이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미군들과 어울려 근처의 명동을 비롯한 서울의 여러 곳을 구경하는 분위기이다. 덕분에 미군들과 훨씬 친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8인행사 본부중대장 보니 클레멘테 대위는 "우리가 이 나라에 대해 잘 이해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미군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는 카투사가 늘었으면 좋겠다"며 카투사와 미군들 사이의 우호 증진을 위해 카투사들이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당부하였다.



카투사 신문 염태성

수요일 오후에 진행되는 영어 교육도 매우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편인데, 이는 카투사들의 수준 및 특성에 따라 반을 각각 영어회화반, 토익반, 토플반으로 나누어 운영하기 때문이다. 영어회화반은 신병들을 위주로 사무실 내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용회화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해외 체류 경험이 많은 카투사와 함께 미군들이 교사로 참여중이다. 토익반과 토플반은 전역 후 유학이나 취직 등으로 시험을 준비하려는 장병들을 위해서 마련된 반이고 인생 설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카투사들의 참여도가 매우 높다고 한다.



1. 지난해 8인행사 부대식당을 방문한 고려대 학군단 훈련생들이 부대에서 제공한 식사를 하며 답소를 나누고 있다.
2. 지난 크리스마스에 메인 포스트 교회를 방문한 혜심원 아이들과 파티를 즐기고 있는 부대원들.
3. 남산 초등학교를 찾은 8인행사 516대대 본부파견대의 박상혁 병장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4. 인천공항의 제1신병보충대 데스크에서 라광준 병장과 조슈아 마론 병장이 신병을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다.
5. 용산 중앙우체국에서 멜빈 그레삼 일병과 김현태 병장이 우편물을 분류하고 있다.



BESTSELLER

My Life

Bill Clinton/Knopf

빌 클린턴의 『My Life』는 그의 일과 이상이 개인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증언한다. 절정의 순간과 위기만이 아니라, 대통령의 직무에 관해 일상적으로 터지는 문제들, 갈등, 좌절, 성취까지 망라하여 완전하고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묘사한다. 이 책에는 한 위대한 국가적·국제적 인물의 삶이 그 재능, 모순과 함께 온전하게 드러나고 있다.



WEBSITE

커리어넷

<http://www.careernet.re.kr>

전역 후 진로 문제에 대한 걱정으로 제대가 즐겁지만은 않다면 커리어넷에서 당신이 나아가야 할 길을 비춰줄 것이다. 청년 실업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며, 취직이 하늘의 별따기가 되어 가는 요즘. 각종 직업의 소개와 진로상담, 적성검사, 지역 진로 정보망 등을 제공하며, 취업 준비를 위한 국내외의 자격증 취득 방법 등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미래를 위하여 투자하는 젊음을 위한 사이트.

■ 카투사 기고문

카투사 전역 기고문

-17 항공여단 본부중대 전(前) 선임병장, 군문을 떠나며..

나는 가끔 생각한다. 과연 카투사란 어떠한 존재일까? 흔히 말하는 군사 외교관? 한미 양국을 이어주는 다리? 한국 육군을 대표하는 군인(미군에게 직접적으로 보여 지는 유일한 육군이니...)? 등등 여러 가지의 말들이 많지만 과연 모든 카투사들이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지원을 한 것일까? 아니, 최소한 카투사들 모두가 전역하기 전에 위에서 언급한 수석 어들을 잘 수행하고 나가는 걸까? 나 또한 가끔 내가 카투사로써 내게 맡겨진 임무를 충실했는지 자신이 없을 때가 많다. 과연 어떤 카투사가 정말 카투사로써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하는걸까?

1. 전입 전

부대로 전입하기 전에는 자신이 어떠한 생활을 하게 될지 예상만 할 뿐 사실 아무것도 모른다고 볼 수 있다. 나의 경우를 보면, 사실 난 내가 카투사를 지원했으면서도 카투사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렇기에 실제로 입대하기 전까지 약 9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서조차 '카투사'라는 단어로 검색 한번 하질 않았다. 처음 카투사에 대하여 들은 것은 논산 신병교육대에서 같은 카투사들에게 들은 것이었다. 체력시험을 보는데 어떤 종목들은 보는지, 외출/외박은 언제 나가는지, 자유시간이 많는지... 등등 기대감만 높이는 좋은 소리들로 가득한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기에 많은 시기의 대상(특히 교관들이 더 심하다)이 되었었다. 그때서야 난 카투사가 무엇을 하는 군인인지 처음 알게 되었다. 물론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정확히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은 그 정보들이 다 정확하지는 않았기 때문. 신병 교육대를 마치고 이동할 때 마치 군생활 다 한 듯한 기분... 누구냐 느꼈을 것이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등, 속세에서 떨어진 곳에만 있다가 도시로 오니 화장품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알겠다는 등... 참 지금 생각하면 군생활 시작도 못한 게 별 소릴 다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이 보충대대... 참으로 어이없었고 억울한 시간을 보냈다 일주일동안이나... 대기하던 기간이 끝나고 KTA 갈 때의 기쁨도 잠시였다. 처음 보는 군복에 베레모, 엄청난 덩치의 미군, 강렬한 인상의 KTA 교관들... 나뿐만이 아니라 모두의 예상을 단번에 깨버리기에 정말 좋은 첫 만남을 가졌다. KTA 생활은 나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나에게 아주 좋은 시간이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난 즐거웠다. 동기들과의 시간들이 즐거웠고 카투사로서의 자부심을 키워가는 그 순간들이 소중한 것이다. 그곳에서 배웠다. 정말로 카투사가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생활해야 하며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나름대로 아주 열심히 생활했기에 예상치 못한 상도 받으며 졸업을 했다.

2. 전입 후

내가 전입 오게 된 곳은 미 17 항공여단 본부중대이다. 용산에 본부중대가 있고 예하대가 성남과 평택 등 흩어져 있는 부대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마주하는 카투사들은 30명 내외이다. 그동안 정들었던 동기들과는 모두 흩어지고 처음 만나게 된 동기 중영이와 함께 자대에 배치를 받았을 때는 막막했다. 항상 교관보다 많은 동기들 사이에서 지내다 선임들만 가득한 곳은 동기나 나를 긴장시키기에 적합했다. 오히려 그래서인가, 동기와는 무척이나 친하게 지냈다. 그 막막한 곳에서 유일하게 내가 상대방과 동등한 입장에서 터놓고 지낼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 말이다. 지금도 신병들(동기가 있는 신병들)이 전입 오면 항상 말한다. 동기끼리 친하게 지내라고, 가장 서로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동기라고. 선임은 선임이라 어려운 점이 있고 후임은 또 후임이라 불편(대개는 후임이 불편해한다)한 점이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보면 동기 없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기까지 하



동기가 있어 군생활은 더욱 즐거울 수 있었다. 사진은 정의석 병장(오른쪽)과 17 항공여단 본부중대 동기 윤중영 병장.

다. 좋다는 사람도 있고 귀찮고 짜증난다는 사람도 있는데 난 좋은 교관과 좋은 반 친구들과 함께해서인지 즐거운 기억이 더 많았다. 물론 병장이 가는 것과 사실상 일병이 다시 교육시설에 들어가는 입장의 차이는 있기에 나로써는 적응하는데 유리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래도 어쨌거나 PLDC에서의 4주는 나로써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고 미군들에게 카투사들의 우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에 더욱 열심히 했다. 나뿐만이 아니라 PLDC에 입교한 모든 카투사가 다 그러했을 것이다.

12개월. 현재까지 내가 선임병장을 한 기간이다. 남은 기간은 한달이지만 벌써 다음 선임병장 후임도 생겼고 3차 정기 휴가에 clearing 등을 빼면 이제 다 마쳤다고 볼 수 있다. 내가 선임병장으로서 얼마나 잘했는지는 모르겠다. 못하게 더 많지만 않으면 다행일 수도 있겠다. 이 시점에서 하고 싶은 말은, 카투사들의 마음가짐이다. 미군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면 서로의 문화적 차이, 이해의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은데 극복하는 과정은 다 틀리다. 싸우거나 그냥 순종하는(혼자서 궁시렁 거리고 만다) 사람이 많은데 난 친해지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아부를 떨라는게 아니다. 인간적으로 다가가 친해지면 뭐든 이야기하기 편해진다. 장기간 선임병장하면서 얻어낸 노하우라고 하기에는 정말 보잘 것 없는 생각이지만 효과는 만만치가 않다. 실제로 업무적이 아닌 인간적으로 협조하기가 훨씬 편했고 미군들도 잘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래서 미군은 안돼, 저래서 미군은 안돼'라는 생각을 체쳐두고 인간적으로 다가가기를 권한다. 그러면 특별히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군사외교관으로서의 업무를 잘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르게 생각해보면 군사 외교관은 꼭 대단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가장 쉬우면서도 작은, 어찌보면 그리 만만치 않은 이 임무를 아직 현역인(나도 아직은 현역이다) 우리가 실천해야 할 가장 큰 임무가 아닐까 생각한다.

17항공여단 본부중대 정의석 병장



제공사진

몹시 춥던 어느 겨울날, 험비에서 부대원들과 함께 험비에서

는 경우도 있다. 난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내가 군대에 와서 얻은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내 동기와 우리 부대원들이다. 동기도 동기지만 우리 부대원들에게 정말 고맙다.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들 사이에서 군생활 한 것이 나에게 행운이다. 그들이 있었기에 군대는 나에게 즐거운 기억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동기와 함께 시작한 자대 생활은 순조로웠다. 물론 사람의 기준에 따라 '순조롭다'의 기준 또한 다르겠지만, 큰 문제 없이 열심히 배우며(군대도 배우의 연속이다) 적응해 나갔다. 그 중에 특별한 것이 있었다면 바로 PLDC를 말할 수 있겠다. 전입 온지 9개월만에 PLDC에 입교하게 되었다. 당시 1개월 모사전급을 하여 막 상병을 달자마자 입교를 하게 된 이유는 선임병장을 맡게 되었기 때문이다. 보통은 한 5~7개월 한다는데 13개월이나 선임병장을 맡게 되었을 때는 정말 갑갑하기까지 했다. 어쩌려고 이런 무거운 짐을 그리도 오래 짊어지라는건지... PLDC는 내가 한번쯤 가보고 싶었던 곳이라 좋았지만 참 부담되는 것을 달고 가려니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다. PLDC는 내 군생활에 있어 또 한번의 전환점이었

■ 카투사 기고문

진우와 함께하는 음악이야기

4. Pantera: 광폭함, 바로 그 자체의 것!

대학에 입학한 2001년, 나는 해방감과 함께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다는 생각에 무작정 행복했었다. 하지만 막상 대학생이 되어서도 '역시 학교는 학교구나...'라고 느끼며 허탈감과 허무함에 휩싸이곤 했다.

젊음의 피가 마구 솟구치던 시기라서 그런지 그때만 해도 헤비메탈 밖에 듣지 않았던 것 같다. 메가데쓰, 메탈리카, 그리고 판테라... 최강의 헤비메탈 시대를 이끌어갔던 메탈리카와 메가데쓰가 쇠락해 가고 있고 그나마 명맥을 유지해오던 판테라도 어질어질하던 시기였던 2001년. 판테라의 새 앨범 'Reinventing The Steel' 이 나온 지 1년 정도가 지나 그들이 한국으로 온다는 소식이 들렸다.

공연 날은 2001년 5월 7일로 잡혀졌고, 나는 티켓을 사기 위해 거의 한 달 동안을 궁핍하게 보냈다. 드디어 공연 당일 친구 4명과 함께 찾아간 올림픽 테니스 경기장, 공연은 스탠딩 공연이었다. 당시 우리나라의 상황으로는 익숙치 않던 공연 형태였고, (세계 최강의 메탈리카마저도 좌석 공연을 했으니) 공연 전 체력은 필수 사항인 것이다. 부산에서 올라온 친구들과 만나 최대한 멋있고 편한 복장으로 근처 공원을 누비고 다니다 테니스 경기장에 도착했다.

역시나 공연장 앞은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마침 누군가 가져온 라디오를 통해서 격렬한 판테라의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며 거기에 굴하지 않으려 우리 역시 무서운 인상과 최대한 여유로운 자세를 유지하며 공연 준비를 하고 있었다. 2리터짜리 물통 2개를 사고 나누어 주는 수건을 받는 등... 7시 공연이 있는데 6시쯤 입장을 하고 한 시간쯤 기다린 듯 하다. 물론 기다리는 동안에도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

가장 잊지 못할 사건 하나는 어떤 여성의 스트립 쇼였다. 누군가의 무릎을 타고 올라간 정상적으로 보이던 그녀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니 옷을 다 벗어버렸고, 물론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난

리를 쳤다. 이 외에도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공연 특성상 흥분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드디어 공연 시작 시간이 다가왔고 무대 위에는 판테라...가 아닌 오프닝 밴드 디아블로가 등장하였다. 비록 이들에 대해 아는 바가 많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디 밴드 중의 하나인 그들의 공연은 관객들을 열광시키기에 충분했다. 이미 흥분한 나를 비롯한 관객들



제공사진



은 모두 팝콘 제조기 안의 옥수수처럼 튀기 시작했다. 이 무렵 나는 벌써 4리터나 되는 물을 디아블로의 등장과 함께 다 쏟아 붓고 말았다. 마치 폭동이 일어난 듯이 우리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디아블로의 오프닝이 끝나고 또 약간의 대기시간이 있었다. 이미 1차 오프닝 폭격을 받은 우리는 사기가 오를 대로 올라있었고 본격적인 공연을 준비하며 전열을 가다듬고 있었다. 그 순간 멀리서 서서히 들리는 웅장한 오프닝 음악이 깔리기 시작했다. 무대 위는 안개로 뒤덮였고 그 사이사이로 뭔가 인간으로 보이는 형체가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폭발한다. 광...

판테라의 폭격이 시작 되었다. 내 친구들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아니 공연장 안의 모두가 내 친구가 되었다. 사람들은 서로 등을 잡고 기차놀이를 하며 뛰어 다니기도 하고, 행개대로 서로를 집어 던져주기도 하고, 또한 서로 밀어주고 날아 다니며 공연을 즐겼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인가! 언뜻 보기에는 미친 사람들의 집단 같지만 음악이라는 공통된 주제 아래 서로 도와가며 또 서로의 몸을 부딪쳐 가며 함께 음악을 즐긴다는 사실이 얼



제공사진

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평화를 외치는 종교와 위선적인 시민 단체들, 정치인들 그리고 세상을 이끄는 많은 사상들... 그 어느 것 하나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로 묶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음악이란 실로 위대하고 대단한 하나의 종교인 것이다.

그 열광의 도가니의 중간에 'flood' 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었다. 홍수... 이 노래의 중간에는 효과음으로 빗소리가 나는 장면이었다. 그 순간이었다. 실제로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 절묘한 타이밍이란, 그리고 기타의 멋진 솔로와 함께 노래가 끝나자 거짓말 같이 비가 그쳤다. 역시 하늘도 함께 그 공연을 즐기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

축복의 80여 분 간의 공연이 끝났다. (솔직히 말해서 공연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이 잘 나지 않는다. 기억나는 것이라고는 내가 날아 다녔다는 것, 물통들도 역시 날아 다녔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 물을 호스로 뿌려 주었다는 것 정도이다.) 생각보다 짧았지만 사람들은 의외로 앵콜을 외치기보다는 놀만큼 놀았다는 표정이었다. 나도 사실 그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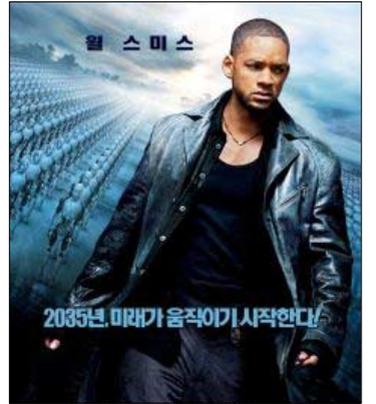
길거리로 뛰어 나왔다. 우리는 맥주 캔을 들고 아스팔트 도로 위에 누워 버렸다. 지나가는 차들은 경적을 울렸지만 나만 누워 버린 건 아니었다. 집으로 오는 길에 몸 상태를 살펴보니 멍이 든 곳도 많았고 힘도 없었지만, 가슴과 머리는 온통 행복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이들의 음악을 '친둥과 번개가 치는 바다를 향해하는 배를 타고서 평화를 느낄 수 있는 음악' 이라고 말하고 싶다. 비록 이들은 이제 존재하지 않지만 (판테라는 2003년에 해체하였다.) 그들의 노래는 매니아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다. ■

702주지원대대 일병 이진우

사진설명

위) 헤비메탈 밴드 판테라 가운데) 공연 중 열창하고 있는 판테라의 보컬리스트 필립 안젤모. 아래) 판테라의 드러머 비니 폴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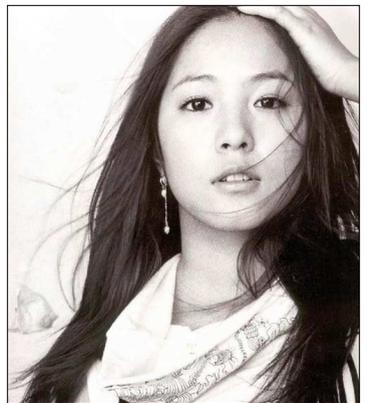
MOVIE

아이,로봇

감독: 알렉스 프로야스

주연: 윌 스미스

서기 2035년, 로봇들은 귀찮은 집안일뿐만 아니라 개인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대신해주는 아이템으로 보급되고, 인간은 그들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하지만 지금의 로봇사회를 건설한 U.S. 로보틱스의 마일즈 박사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범인으로 로봇 '써니'가 지목된다. 이를 조사하기 위해 비밀경찰인 델 스프너(윌 스미스)가 사건 조사에 착수하는데...



TOP CHARTS

My Name

BoA

2. 그곳에 서서 / 박효신
3. 제주도의 푸른 밤 / 성시경
4. 불꽃 / 코요테
5. The way U are / 동방신기
6. 가슴에 지는 태양 / 김범수
7. 따라해 봐 / 이정현
8. 대한건아만세 / NRG
9. Ring My Bell / Dynamic Duo
10. 사랑했잖아... / Lyn
11. 아래로!! / Maya
12. 180° / MC몽
13. 님은사람 / Tei

레이싱걸로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며 인터넷을 통해 우리에게 얼굴을 처음 알린 그녀는 최근 종영한 '폭풍 속으로'에서 짧지만 인상적인 단역 연기를 펼치며 연기자로 데뷔했다. 요즘 그녀는 청춘 드라마 '알게 될 거야'에서의 자유연애주의자 오혜란역으로 그녀의 연기 인생에 힘찬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제1호 연예계 데뷔 레이싱걸인 그녀는 당찬 포부를 가지고 있었다. 아직은 레이싱걸 오윤아로서 우리에게 더욱 친근하지만 곧 '멋진 연기자' 오윤아로 불리고 싶고, 그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는 그녀의 각오가 꼭 이뤄질 것이라 믿는다.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오윤아입니다. 1980년생이고, 레이싱걸로 데뷔를 해서 처음 연기자로 인사드리는 신인입니다.

-레이싱걸로서 많은 인지도를 얻게 되었는데, 본인의 운전 실력은?

사실 전 아직 면허증이 없어요. 극중 제 캐릭터가 운전을 하는 장면이 많아서 괜히 제가 운전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은 아니랍니다. (웃음)

-드라마 '알게 될 거야'에 대한 소개와 이에 임하는 각오

이번 드라마 '알게 될 거야'의 출연진은 모두 신인들로 구성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 자체가 참 신선할거라고 생각해요. 드라마 작가 선생님도 참신한 아이디어로 대본을 써 주셔서 톡톡 튀고, 새로운 드라마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너무 '레이싱걸 오윤아'로만 인식이 되어있어서 저의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연기 연습을 많이 하던 차에 '알게 될 거야'에 캐스팅이 된 거예요. 이번 드라마를 통해 저의 새로운 면을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노력중입니다.

-남자친구가 군인이라면 무엇을 해주고 싶은지

남자친구가 군인이라면 먹을 것을 많이 보내 줄 것 같아요. 제 동생이 지금 군에 있거든요. 처음에는 음식을 싸들고 자주 면회를 가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 남자친구가 군대에 있다면 편지도 보내고, 제 사진을 많이 찍어서 보내 줄 것 같아요. 또 휴가를 나오면 옷도 사주고 싶네요.

-카투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카투사하면 카투사 군복이 떠올라요. 예전에 제 친구가 카투사였어요. 평소에는 무척 어려워 보이는 친구인데, 군복만 입으면 참 어른스러워 보이고, 남자다워 보이더라고요.

-카투사에게 한마디

열심히 하시고요, 제대하는 날까지 몸 건강하세요. 앞으로 절 많이 지켜봐 주시고, 제대하셔도 오윤아를 계속 좋아해주세요. ■

이병 신희석

# 정상을 향한 질주 오윤아



사진: 카투사 신문 장승모